

2016. 3. 19. 사회복지직 9급 국어

(공단기학원 서한샘 교수 해설 : % 표시는 수강생의 정답률 표시임)

문 1. 밑줄 친 단어에 가장 적절한 한자는? 2016. 사회복지직 9급 40%

나는 구청의 담당자에게 연유를 설명하고 서류를 찾아와서 서류 내용을 정정해야만 했다.

- ① 訂正 ② 正定
③ 正丁 ④ 正正

답 ①

1. [어휘/한자] 한자에 취약한 수강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

① 訂正(정정):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음

[힌트] 글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므로 ‘言 말씀 언’변의 ‘訂(정)’자를 찾는다. 조그마한 근거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오답 풀이]

정정(正定): [불교] 번뇌를 벗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

정정(正丁): [역사] 직접 군역에 나가는 사람

정정(正正): 바르고 멋뻐함

문 2. 의미가 다른 한자어는? 2016. 사회복지직 9급 92%

- ① 면종복배(面從腹背)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③ 구밀복검(口蜜腹劍)
④ 소리장도(笑裏藏刀)

답 ②

2. [어휘/한자성어]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일정한 주견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같이 행동함 [2015 사회복지직 출제] ‘한샘 어휘의 힘’ 교재 참조

[오답 풀이]

①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함[2015 사회복지직 출제]

③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검이 있다. 입으로는 친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하려 함

④ 소리장도(笑裏藏刀): 소중도(笑中刀). 웃음 속에 칼을 감춤

문 3.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96%

- ① 춘천 - Chuncheon
- ② 밀양 - Millyang
- ③ 청량리 - Cheongnyangni
- ④ 예산 - Yesan

답 ②

3. [문법/로마자 표기법] 원칙에 충실한 공부가 필요하다.

② 밀양[미량] - Miryang(○) Millyang(×)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Millyang은 '밀량'이 된다.

[오답 풀이]

- ① 춘천 Chuncheon
- ③ 청량리[청냥니] Cheongnyangni
- ④ 예산 Yesan

문 4.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72%

- ① 나는 거기에 어떻게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
- ② 이미 설명한바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③ 은연 중에 자신의 속뜻을 내비치고 있었다.
- ④ 그 빨간 캡슐이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입니다.

답 ③

4. [문법/띄어쓰기]

③ 은연 중에(×) → 은연중에(○) 조심해서 익혀야 한다.

은연중(隱然中): (주로 '은연중에' 꼴로 쓰여) 남이 모르는 가운데.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중'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 영웅 ∨ 중의 영웅, 근무 ∨ 중에, 임신 ∨ 중, 오늘 내일 ∨ 중으로 / 그러나 '그중, 은연중, 무의식중, 부재중, 부지중, 한밤중' 등은 한 단어로 된 합성어로 보아 붙여 쓴다.

[오답 풀이]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이므로, 이런 문제는 ①, ②, ④의 띄어쓰기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③을 의심하여야 한다.(거꾸로 푸는 문제)

- ① 갈지 = 가 + ㄹ지(어미)
- ② 설명하 + ㄴ바(어미)
- ④ 아픈 데(에): '데'는 의존명사.

문 5. 어법상 옳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96%

- ①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② 고객님, 주문하신 물건이 나오셨습니다.
- ③ 어른들이 문자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④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게시겠습니다.

답 ①

5. [문법/어법]

① 축하드립니다 - '축하합니다'와 함께 높임을 더욱 분명히 드러낼 때 사용할 수 있다.

(2011. 표준 언어 예절)

[오답 풀이] 자주 확인하는 문제이다.

② 나오셨습니다(×) → 나왔습니다(○)

③ 안절부절하며(×) → 안절부절못하며(○)

④ 게시겠습니다(×) → 있으시겠습니다(○)

문 6.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88%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병글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香煙)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것다.

- 이수복, 「봄비」 -

① 비유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② 3음보의 변형 민요조 율격을 지니고 있다.

③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④ 주관을 배제한 시각으로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답 ④

6. [문학/현대시]

④ 이 시는, 봄비 그치면 펼쳐질 풍경을 주관적으로 수용하여 그려내고 있다.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의 표현은 눈앞에 펼쳐지는 사실적인 풍경이 아니라 화자의 마음에 주관적으로 펼쳐지는 자연을 의미한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무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냐?”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길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 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묶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 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험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는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 하더라니 겨우 간성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 염상섭, 「삼대」 중에서 -

- ① 논리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밝히고 있다.
- ②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약점을 비유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약점을 들어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답 ④

8. [현대소설/말하기 방식] 염상섭 ‘삼대’

이 대목에는 부자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아들 상훈은 족보 만드는 데 쓸데없이 큰돈을 쓴 아버지 ‘조(의관) 영감’에게 조심스러우나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한다. 이에 화가 난 아버지는 아들의 약점을 들춰 공격한다.

마지막 아버지의 대화 “어떻게 유리하게 ~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에 나타나 있다.

문 9. 밑줄 친 단어들의 시대적 상징성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100%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차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기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답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관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뒤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 황석영, 「삼포로 가는 길」 중에서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답 ①

9. [현대소설/시대상 상징어] 황석영 ‘삼포 가는 길’

① 도차 - ‘불도저’를 가리킴. 토목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 자동차

방둑 - 제방(堤防) 둑. 물가에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을 쌓아 만든 둑.

트럭 - 화물 자동차

‘도차, 방둑, 트럭’이란 단어는 바다를 막는 공사관의 용어들로, 고향 삼포가 산업 사회로 이동하면서 개발 현장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하늘’은 자연의 순리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문 10.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88%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상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모든 역사가들에게 똑같은, 말하자면 역사의 척추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이 있다. - 예를 들면 헤이스팅스(Hastings) 전투가 1066년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명심

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 역사가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대전투가 1065년이나 1067년이 아니라 1066년에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스트본(Eastbourne)이나 브라이턴(Brighton)이 아니라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역사가는 이런 것들에서 틀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제기될 때 ‘정확성은 의무지만 미덕은 아니다.’라는 하우스먼(1859~1939, 영국의 시인이자 고전 학자)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역사가를 정확하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은 어떤 건축가를 잘 말린 목재나 적절히 혼합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과 같다.

- ① 역사적 사실은 역사 서술의 기초가 된다.
- ②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역사가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 ③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은 역사가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이다.
- ④ 역사가들에게는 역사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이 있다.

답 ②

10. [비문학/내용 파악]

연대, 사건 등의 역사적 사실은 역사를 구성하는 기초로서 정확해야 하며, ‘분명히 중요하다.’ 역사가는 이런 것들에 틀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②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역사가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내용과 맞지 않는다.

문 1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72%

- ① 요즘 앞산에는 진달래가 한참이다.
- ② 과장님, 김 주사의 기획안을 결제해 주세요.
- ③ 민철이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위었다.
- ④ ‘가물에 콩 나듯’이라더니 제대로 싹이 난 것이 없다.

답 ④

11. [문법/맞춤법]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정답률이 높지 않은 것을 보면 수험생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 ④ 가물 = 가뭄 : 복수 표준어

[오답 풀이]

- ① 한참(×) → 한창(○)
- ② 결제(×) → 결제(○)
- ③ 여위었다(×) → 여의었다(○)

문 12. 다음 중 표기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48%

- | |
|--|
| ㄱ. 영화는 공부를 하느라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세웠다, 새웠다). |
| ㄴ. 네 동생은 우리가 (닥달해, 닭달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

- | ㄱ | ㄴ |
|-------|-----|
| ① 세웠다 | 닭달해 |
| ② 새웠다 | 닥달해 |
| ③ 세웠다 | 닥달해 |
| ④ 새웠다 | 닭달해 |

답 ④

12. [문법/맞춤법] ‘닭달해’를 헛갈려 정답률이 낮았다.

④ (밤을) 새웠다 / 닭달해 (봐야) - 기본형은 ‘새우다, 닭달하다(남을 단단히 압박질러서 혼을 내다)’이다. ‘닭달해’의 표기가 헛갈리기도 하나, ‘닭아세우다/닥아세우다’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문 13. 표준 발음에서 축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88%

- ① 놓치다
- ② 헛웃음
- ③ 똑같이
- ④ 닫히다

답 ④

13. [문법/음운 변동]

④ 닫히다[다치다] - 구개음화 / 과정을 살펴보면

닫히다[다티다 - ㄷ + ㅎ = ㅌ : 축약 현상]

→ [다치다 - ‘ㅌ’이 ‘이’의 영향으로 ‘ㅊ’으로 바뀜: 구개음화 - 교체 현상]

[오답 풀이]

- ① 놓치다[논치다] - 교체 현상(음절 끝소리 규칙)
- ② 헛웃음[헛우슴→허두슴] - 교체 현상(음절 끝소리 규칙 / 연음 현상)
- ③ 똑같이[똑까치] - 교체(된소리되기 / 구개음화)

문 14. 다음 중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92%(④ 정답일 때 / 모두 정답 처리됨)

- ① 정수가 흰 바지를 입고 있다.
- ② 미희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 ③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입원 환자를 둘러보았다.
- ④ 모든 소년들은 좋아하는 소녀가 한 명씩 있다.

답 정답 없음(④로 발표, 후에 '정답 없음'으로 처리됨)

14. [문법/어법]

- ① 입고 있다. - 입고 있는 중이다(진행) / 입고 있다(상태)
- ② '보고 싶은'의 주체에 따라 - 미희가 보고 싶은 친구들 / 미희를 보고 싶은 친구들
- ③ 간호사와 함께 입원 환자를 둘러보다. / 간호사와 입원 환자를 각각 둘러보다.
- ④ 중의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워 ④를 정답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좋아하는'의 주체를 '소녀가'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에 따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한 듯하다. 아쉬운 처리임.

문 15. 밑줄 친 '고'와 한자가 같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60%

국민들의 고충(苦衷)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① 과거에는 신문고를 이용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
- ②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계속된다.
- ③ 그 방송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의 실태에 대한 고발인 듯했다.
- ④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답 ②

15. [어휘/한자] 이 정도 한자도 어려워하는가? '고'의 뜻을 생각해 보아도 답은 나오지 않는가?

고충(苦衷):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 '괴로울 고/쓸 고 곱'

② 고민(苦悶):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괴로울 고/쓸 고 곱'

[오답 풀이]

- ① 신문고(申聞鼓): 조선 때, 백성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 따라서 '북 고 鼓'
- ③ 고발(告發):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따라서 '알릴 고 告'
- ④ 숙고(熟考): 깊이 생각함. 심사숙고(深思熟考). 따라서 '생각할 고 考'

문 16. 밑줄 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80%

쓰러져 가는 집에서 늪은 아버지가 홀로 기다리고 계셨다.

- ① 저 기차는 정말 번개처럼 빠르네.
- ② 박사는 이제 그를 조수로 삼았네.
- ③ 산나물은 바다의 미역과 다르겠지.
- ④ 걸모습보다 마음이 정말 예뻐야지.

답 ②

16. [문법/품사] 기본으로 다루는 문제다. 틀리면 안 된다.

늪다 - 동사. (활용 예) 늪는, 늪는다

② 삼다 - 동사. (활용 예) 삼는, 삼는다

[오답 풀이]

- ① 빠르다 ③ 다르다 ④ 예쁘다 - 형용사

문 17.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52%

- ①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문자의 이름인 동시에 그 문자를 설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 ②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유네스코(UNESCO)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③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의 음가와 제자 방법, 한글의 사용 방법 등을 한자로 적은 책이다.
- ④ 치두음(齒頭音)과 정치음(正齒音)에 대한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답 ②

- 17. [훈민정음] 이 문제도 기본으로 다루는 문제이다. ‘한샘 동형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이다.
- ② 1997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문자로서의 훈민정음(한글)이 아니라 책으로서의 훈민정음(훈민정음 해례본)이다. 문제에 ‘세계문화유산’이란 표현은 잘못되었다. ‘세계기록유산’이 맞다.

[오답 풀이]

- ④ 치두음, 정치음은 중국어에서 다루는 치음의 하나로서 훈민정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100%

내가 어려서 최초로 대면한 중국 음식이 자장면이고(자장면이 정말 중국의 전통적인 음식인지 어떤지는 따지지 말자.), 내가 맨 처음 가 본 내 고향의 중국집이 그런 집이고, 이따금 흑설탕을 한 봉지씩 싸 주며 “이거 먹어해, 해해해.” 하던 그 집주인이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중국 음식이라면 우선 자장면을 생각했고 중국집이나 중국 사람은 다 그런 줄로만 알고 컸다.

... (중략) ...

그러나 적어도 우리 동네와 내 직장 근처에만은 좁고 깨끗지 못한 중국집과 내 어리던 날의 그 장궤(掌櫃) 같은 뚱뚱한 주인이 오래오래 몇만 남아 있었으면 한다.

- 정진권, 「자장면」 중에서 -

- ①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 ② 기억을 중심으로 편안하게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소박함과 정겨움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의인화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답 ④

- 18. [문학/현대수필] 정진권 ‘자장면’
- 자장면과 중국집, 중국집 주인에 대한 정겨운 추억을 담담히 쓴 수필이다. ‘자장면을 의인화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④는 나타나 있지 않다.

문 19. 논리 전개에 따른 (가)~(라)의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60%

이십 세기 한국 지식인의 지적 행위는 그들이 비록 한국인이라는 동양 인종의 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가) 그러나 그 역방향 즉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는 실제로 부재해 왔다. 이러한 부재 현상이 근본 원인은 매우 단순한 사실에 기초한다.

(나) 동양이 서양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 그 해석학적 행위의 주체는 동양이어야만 한다.

(다) ‘동양은 동양이다.’하는 토타리티지(tautology)나 ‘동양은 동양이어야 한다.’라는 당위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양인인 우리가 동양을 알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우리는 동양을 너무도 몰랐다. 동양이 왜 동양인지, 왜 동양이 되어야만 하는지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동양은 버려야 할 그 무엇으로서만 존재 의미를 지녔다. 즉, 서양의 해석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서양을 해석할 동양이 부재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나) - (다) - (라) - (가)
- ③ (다) - (라) - (가) - (나)
- ④ (라) - (가) - (나) - (다)

답 ①

19. [비문학/전개 순서] 전개 순서 문제에 취약한 수험생이 많다. 각별히 훈련할 것.

서두의 첫 문장에 이어질 문장을 찾으면 답은 쉽게 나온다.

(가) ‘그러나 그 역방향 즉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는 실제로 부재해 왔다.’는 내용에 역접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이다. 그러므로 서두의 첫 문장에 이어지는 문장은 (가)이다. (가) 뒤에는, 동양이 서양을 해석할 때의 주체를 언급한 (나)가 이어지며, 그 뒤에 이어지는 글은 (다), (라)이다.

문 20.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사회복지직 9급 64%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所有)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 ① 소유의 역사(歷史)는 이제 끝났다.
- ② 소유욕은 불가역적(不可逆的)이다.
- ③ 소유욕은 이해(利害)와 정비례한다.
- ④ 소유욕은 없어진 세상이 올 것이다.

답 ③

20. [비문학/문맥, () 완성] 문맥 문제도 항상 조심하여 훈련할 것.
() 안에 들어갈 글은 뒤의 ‘그것’에 이어진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보면 ()에 들어갈 문장은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이다.

[총평]

문법 문제가 많았으며, 문법·어휘에서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상 강조한다. 기본에 충실하고 필승의 신념을 다져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1. 어휘 3문항. 모두 한자 문제임. ‘정정(訂正) / 고민(苦悶)’ 접근을 제대로 못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 2. 문법 10문항. 맞춤법, 음운 현상, 중의적 해석, 훈민정음 등의 출제에 조심해야 한다. 문법의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한다. 어법(중의적 해석) 문제에서 출제 미스가 된 것은 아쉽다.
- 3. 비문학 3문항. ‘역사적 사실’ 내용 이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 4. 문학 4문항. 현대소설의 말하기 방식, 시대상 상징어 문제에 조심해야 한다.